

(1) 고시가이드 합격자 합격수기 및 비법전수	4
▶ 노성국 회원	5
▶ 정재필 회원	7
▶ 오정규 회원	9
(2) 소방승진시험이란?	11
▶ 선발개요	12
▶ 현행 시험관련 기준	13
▶ 응시원서 교부	14
▶ 소방직 공무원 승진시험 배점비율	17
▶ 소방직 공무원 승진시험 과목별 세부출제범위	17
▶ 2011년 소방승진시험 일정표	19
▶ 소방 자동승진(근속승진) 제도	21
(3) 고시가이드 합격보장시스템	22
▶ 2012년 소방승진 합격 프로그램	23
▶ 시험을 잘 치는 방법	27
(4) 승진시험 대비 과목별 학습방법	31
▶ 행정법 구모영 교수	32
▶ 소방전술 이문주 교수	37
▶ 위험물안전관리 김동완 교수	39
▶ 소방공무원법 권동익 교수	41
※ 객관식 시험을 잘 치는 방법	45
※ 시험장에서 통하는 원칙	45

▶ 시험을 잘 치는 방법

1. 시험의 중요성

1) 시험 계획의 중요성

시험 이틀 전까지 과목당 시험 범위를 두세 번 정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다. 자신 있는 과목과 약한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할 시간과 요일을 배정한다. 이 때 공부할 내용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시험 준비 기간 동안에 할 일은 시험범위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핵심 정리 노트와 약점노트를 만드는 일이다.

2) 시험 전날의 중요성

시험을 위한 공부는 평상시 공부와 다르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모르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일주일 동안 시험 보기 전날 2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을 줄여라. 시험 전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표시해 두었다가 약점노트를 만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한다. 시험 보기 전날 모든 시험 준비가 끝나야 한다.

3) 시험 당일, 시험보기 10분 전의 중요성

시험 당일에는 무조건 일찍 가서 시험 칠 좌석을 점검하라. (책상과 의자 교체)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내용들만 짧은 쪽지에 적어두었다가 시험지를 나눠 주는 순간까지 읽어 단기기억 해 둔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시험지 여백에 적어놓는다. 이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기기억을 이용한 것뿐이다. 시험 전 10분은 평소의 10시간과 맞먹는다.

4) 시험을 편하게 생각하자

시험의 최대 걸림돌은 긴장이다. 시험은 누구나 치르는 과정이니 편안히 임하되, 아무리 시험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해도 절대로 자거나 밖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최선을 다해서 풀자. 이것은 시험에 대한 예의다. 평소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컨디션 저하, 기분이 나빠짐, 단기기억에 실패 등이다. 기분이 좋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므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억지로라도 웃어라. 어려운 문제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다고 생각하고 장기기억에서 기억해 내려고 노력하라. 확정적 증거가 없는 한 고치지 마라. 처음 생각난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

* 승진 시험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시험 비결

- 한 달 전에 2번, 2주 전에 2번, 하루 전에 2번, 10분 전에 2번 보는 스케줄러를 작성하라!
- 한 달 전부터 최종 정리를 하면서 모르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 약점 노트를 최대한 활용하라

2. 시험에서 성공하는 10가지 비결

1) 시험지를 받기 전에 약 1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야 한다. 깍지킨 손을 배꼽 아래에 대고 눈을 감은 후, 1분간 13~14회 정도 천천히 복식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을 모르면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 승부는 최초 3분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자. 시험지 받은 후 바로 할 것이 하나 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3분 정도 문제 전체의 내용을 쪽 훑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에는 '○',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는 '△', 못 풀 문제에는 '?'를 해 두자. 그런 후 '○' -> '△' -> '?'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3) 시험지를 메모지로 활용하자. 바로 조금 전까지 애써 외웠던 내용을 잊어버려서 억울

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시험지를 받는 즉시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용어 등을 시험지 구석에 메모해두자.

4) 질문하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자. 출제자의 의도파악은 객관식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므로 우선 문제를 차분하게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 부정에 주의하고, 주요 용어와 단어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좋다.

5) 시험장에서는 시간의 안배가 생명이다.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입체적인 시간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율적 시간 관리를 위해 두 번째의 고려대상으로 과목간의 시간배분을 생각할 수 있다.

6) 함정에 주의하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부당한 것은?],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가장 특별히],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가장 밀접한], [가장 정확한], [가장 부적절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등의 설문에는 특히 주의하자. 그리고 <만>, <뿐>, <전혀>, <no>, <never>, <every>, <all>, <entirely> 등 극단적인 말을 사용한 문장은 대개 거짓임을 알자.

7)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자. 찍더라도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처음에 생각한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문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처음 떠오른 답안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도저히 정답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항목별 정답의 비율에 따라 답안을 메우는 것이 좋다.

8) 모든 문제를 푼 다음에는 실수한 곳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훑어본다. 주관식은 글씨를 정성껏 써라. 알아보기 어려운 답안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필기구는 흑색이나 청색을 사용하고 연필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자.

9) 첫 시간의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만 생각하자. 첫 시간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여파로 다음 시험까지 망치는 경우는 자주 경험하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한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럴 땐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괜히 답 맞춰보다가 기분만 상하지 말고 다음 시험이나 준비하자!

10) 시험을 치르는 전날 밤에는 일찍 자고, 그 다음날은 일찍 일어난다.